

# 지역 문화예술단체의 창작의욕 고취

사단법인 둘레, 문화를 움직이는 힘 프로젝트 '동력' 추진... 내달 8일까지 접수

정읍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단인 사단법인 '둘레'는 지역신진예술단체지원사업으로 문화를 움직이는 힘 프로젝트 '동력' 공모사업을 추진한다.

'동력'은 신진예술단체의 안정적인 창작·발표 활동과 예술경력 개발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이다.

지역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공공지원금 수혜 경력이 없는 단체에게 공모사업을 지원하기 전 경력을 쌓는 기간 2년 동안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한다. 접수 기간은 내달 8일까지다.

지원 신청은 사단법인 둘레 홈페이지(dulle.or.kr)에서 신청서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지원 분야는 시각과 음악, 연극, 무용, 전통예술 등 예술영역 전반이다.

지원 대상은 시에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자로 구성된 예술단체다.

신청 자격은 공공지원금의 수혜 경력이 없는 예술단체로 단체 등록증이 없는 단체와 그룹도 지원 가능하다. 등록증이 없는 단체는 선정된 후 발급이 필요하다. 등록증 발급은 추후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되면 30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안수용 둘레 이사장은 "지역신진예술단체지원사업인 '동력'은 지역의 문화예술단체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를 높이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단법인 둘레 홈페이지(dull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음=김대환기자



# 남원 예약의 산실 '명무 조잡녀' 희망의 춤을 만나다

남원문화재단위원회에서는 오는 5월 8일부터 12일까지 남원 광한루원 일대에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대표 축제인 제89회 춘향제를 개최하고 故조잡녀 명무의 희망의 춤을 무대에 올린다.

또한 조잡녀류 전통춤을 보존·전승해 오고 있는 조잡녀류전통춤보존회(대표 정명희)에서는 오는 30일 명무 4주기를 맞아 '아우름·조잡녀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예춘 명무관 마당에서 공연을 펼친다.

공연에서는 생전에 오롯이 몸짓만으로 관객들의 마음을 응어리를 풀어주고 새로운 희망을 주었던 명무의 대표 춤인 살풀이와 승무를 비롯한 7마당을 70분 동안에 걸쳐 풀어낼 계획이다.

조잡녀 명무는 1923년 남원에서 태어나 조선의 마지막 전설의 춤꾼이었던 스승 이상선에게 궁중무인 승무와 살풀이를 사사했으며, 대표춤인 살풀이는 우리 춤의 원형을 가장 잘 보존했다고 평가받아 2016년 국립무형유산원

에서 전승보존가치를 인정받았다.

남원시는 조잡녀류전통춤보존회와 함께 조잡녀 4주기 추모공연을 시작으로 조잡녀류 춤의 정통성을 보존하고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3월 개관한 조잡녀살풀이 명무관에서 공개강좌를 비롯해 명무와 생전에 인연이 있던 명인과의 전시, 협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다양한 계층의 조잡녀류 춤에 대한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정명희 교수(조잡녀류전통춤 전수자)가 진행하는 무료 공개강좌와 청소년 참여프로그램 '나도한다 한 국무용!'과 외국인과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한 '파란 눈의 조잡녀!' 등 일반인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며, 공개강좌는 오는 4월



15일까지 접수를 받아 모두 15회에 걸쳐 매주 월요일 2시부터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남원시에서는 현재 조성하고 있는 명칭의 여정과 연계해 조잡녀살풀이 명무관을 남원 예약의 산실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 장수가야의 어제를 담아 내일을 설계하다... 장수군 학술심포지엄 개최

장수군은 오는 29일 가야문화유산 종합정비 계획 수립을 위한 '장수군 가야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이라는 주제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날 오후 1시30분 군민회관에서 진행되는 학술심포지엄은 문화재청, 전라북도, 장수군이 공동 주최하며 (재)전주문화유산연구원(원장 유철)이 주관으로 열린다.

학술심포지엄에서는 군산대학교 광장근 교수가 '장수군 가야문화유산 선택과 집중', 예

원대 정경미 교수 '장수가야 유적 현황과 보존관리 방안', 전주대 김경미 교수 '포용적 관광성장을 위한 장수가야 로컬리티 구현의 필요성', 전북대 남해경 교수 '장수군 가야문화유산의 활용'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토론은 전주대 이재운 교수를 좌장으로 김석희(문화재청), 서정석(공주대학교), 유철(전주문화유산연구원), 이훈범(중앙일보), 장세길(전북연구원)이 참여한다.

학술심포지엄은 무료로 진행되며 누구나 참

여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학술심포지엄은 백두대간의 서쪽에 유일하게 자리한 가야 문화유산을 알리고 이를 보존하며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의미 깊은 자리"라며 "장수군 가야문화유산을 통한 관광자원화 및 국가사적, 세계유산 등재 등의 추진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장수군 일원에서는 240기의 왕릉급 고총고분과 70개소의 제철유적, 21개소의 봉수유적, 4개소의 산성유적 등 가야문화유산이 확인됐다.

/장수=고관호 기자

# '태권도원으로 봄 소풍 가요'

'봄이 오나 봄 가족 캠프' 내달 16일까지 참가자 모집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이상욱)은 오는 4월 27일부터 28까지 '봄이 오나 봄, 태권도원 가족캠프(이하 캠프)'를 개최한다.

재단은 이번 캠프에 4인(3~5인 포함) 기준 25가족(총 100명)을 선착순 모집하며, 참가를 희망하는 가족은 4월 16일까지 태권도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입소와 함께 태권도복을 입고 진행하는 이번 캠프에서는 가족 모두가 함께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강화했다.

태권도 기본자세와 발차기를 배우고 송관을 격파해보는 '너를 보여줘', 지도와 나침반을 이용해 태권도원의 숨은 보물을 찾아가는 '태권도원 보물찾기 대회' 등 가족애를 더욱 키울 수 있는 시간으로 구성했다.

이외에도 태권도원 상설공연과 국립태권도박물관 관람, 캠프를 마친 후 가족 단위로 모노레일을 타고 전망대를 올라가는 등 태권도원을 보고 즐길 수 있는 내용으로 가득하다.

태권도진흥재단 유지나 주임은 "태권도원의 청정자연에서 진행되는 캠프에 많은 참가를 바라며 태권도를 처음 접하는 분들도 환영한다"라며 "가족 간의 사랑을 더욱 키워가는 시간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캠프 참가 신청 및 자세한 안내는 태권도원 홈페이지(<https://www.tpf.or.kr/t1/main/index.do>) 또는 전화(063-320-0663)로 확인할 수 있다.

/무주=전문선기자

# 세대와 지역을 아울러 하나 되는 고창농악

서울서 고창굿 한마당 성황리 펼쳐져

(사)고창농악보존회(회장 이명훈)의 2019 제17회 고창굿 한마당이 최근 서울 남산골 한옥마을 야외마당에서 펼쳐졌다.

'세대와 지역을 아울러 하나 되는 고창농악'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이번 행사는 관객 700여명과 고창농악보존회원 40여명, 고창농악전수생 130여명 고창군농악단연합회 30여명이 참여하여 성황을 이뤘다.

이번 행사는 식전행사로 고창농악전수생들의 앞 글을 시작으로 이명훈 고창농악보존회장의 환영사와 고창 출신인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회장과 신준은 고창군농악단연합회장의 축사가 진행되었다. 이후 용출 만들기부터 줄다리기, 줄 감기까지 고창농악 줄 굿의 전 연행 과정을 진행했다. 이후 고창농악보존회, 고창농악전수생연합, 고창군농악단연합회가 함께하는 고창농악 판굿, 구정놀이도 펼쳐져 남산골 한옥마을을 찾은 재경고창군민 및 서울 시민들과 남산골 한옥마을을 찾은 많은 외국인들에게 재미난 볼거리를 선사했다.

이명훈 고창농악보존회장은 "서울 하늘 아래에서 매년 펼쳐지고 있는 고창굿 한마당은 세대와 지역을 아울러 하나 되는 신명 나는 곳이다"며 "올해도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 속에 무사히 행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 특히, 재경 고창군민과 고창군농악단연합회의 참여로 더욱 풍성한 자리가 된 것 같아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한편, (사)고창농악보존회가 주최·주관하고 고창군이 후원하는 2019 제17회 고창굿 한마당은 2003년부터 고창농악보존회원들과 고창군 14개 읍·면 농악단, 고창농악을 전수 받는 전국의 전수생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화합의 장으로, 그동안 특선 한강공원을 비롯하여 서울시립대, 동덕여대, 신촌 창천문화공원 등에서 개최되어 왔으면 작년에 이어 올해 서울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진행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maeil.com](http://www.jmaeil.com)

2019 대한민국 대표축제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www.firefly.or.kr

2년 연속 문화관광 대표축제 선정

# 무주 반딧불축제

Muju Firefly Festival

2019. 8.31 토 ~ 9.8 일

무주군